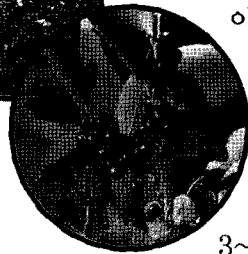


사스레피나무

(학명 : *Eurya japonica*, 차나무과)



“가소래기” 한국 양봉조합장 조상균씨의 글에서 이 이름을 읽고 여러 도감을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이번 2월에 ‘꿀벌사랑동호회’라는 인터넷카페를 알게 되었는데, 그 카페에 정읍에서 양봉을 하시는 김동신씨가 올린 ‘가시레기’ 사진을 보고, 사스레피나무라는 것을 알았다. 아마 전라도지방에서는 ‘가소래기’ 혹은 ‘가시레기’라고 부르는 것 같다.

사스레피나무는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의 해안가에서 자라는 상록소교목이며 일본, 중국, 대만, 인도 등에도 분포한다. 이 나무는 차나무과에 속하는데, 차나무과에는 차나무, 동백나무, 후피향나무, 노각나무, 빗죽이나나무, 우묵사스레피나무 등이 있다. 우리에게는 동백나무가 가장 익숙한 나무일 것이다. 좋은 밀원수종이지만 생육지가 제한되어 있어서 각광을 받지는 못한다. 노각나무도 참으로 아름다운 나무이지만 추위에 약해서 전국적으로 식재하지 못하며 후피향나무는 잎이 아름다워 정원수로

기르고 있다.

사스레피나무는 가지의 정아가 빗죽이나나무와 비슷한 피침형이다. 잎은 두 줄로 호생하고 타원형 또는 장타원형이며 길이 3~7cm, 너비 1~3cm이며, 둔두 또는 예두이고, 기부는 예저이며 파상의 거치가 있다. 잎 표면은 혁질이고 광택이 있다. 중앙맥이 잎표면에서는 오목하게 들어가 있고 뒷면에서는 도드라져 있다.

자용이주로서 꽃은 3~4월에 1~2개씩 달리지만 온 나무를 덮을만큼 많이 핀다. 꽃의 색은 연한 황록색, 백색 또는 담자색이다. 열매는 장과로서 직경 5~6mm이고 10월에 흑자색으로 익으며 겨울동안에도 달려 있다.

정원수로 적합하고 목재는 가구재로 쓰이며 열매는 염료로 사용한다. 번식은 종자를 파종해도 되며, 6~7월에 새로 나온 가지로 삼목하면 뿌리가 잘 내린다.

200여종의 밀원식물을 소개한 백형수씨가 제일 먼저 “양봉계”에 소개한 것이 이 나무다. 사스레피나무는 3월초, 중순에 10여일간 꽃이 피고, 꽃의 색은 백색, 담황색, 또는 담자색이며, 화분은 회백색이다. **양봉**